

문화와 성역할정체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간 비교문화 연구*

장수지†
경성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형이 되는 '자율성'과 '관계성'이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 혹은 독립적 자기개념-상호협조적 자기개념 차원의 속성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별 및 문화에 따른 성역할정체감(긍정적 남성성/긍정적 여성성/부정적 남성성/부정적 여성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개국의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자기평가가 높았고,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역할정체감 하위구성요소 간의 상관분석 결과, 국가에 따라 성역할정체감 구성요소 간의 관계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가정된 구성요소 간 관계성은 주로 미국 남성에서만 지지되었다. 셋째, 이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성별 및 국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지만, 성별보다는 국가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과 미국 대학생은 성역할정체감의 양상이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 대학생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정적 측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미국 대학생은 긍정적 측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높았다. 한국 대학생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중국 대학생의 긍정적 남성성과 여성성 정도는 미국 대학생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성역할정체감이 성별전형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개인이 속한 사회의 고유한 가치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과 비교문화연구에서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차원의 이분법적 논의에서 탈피하여 동질 문화권 내의 문화적 이질성에 더 주목해야 함을 강조해 볼 수 있다.

주요어: 성역할정체감, 성차, 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개념, 비교문화

흔히 독립적이고 용맹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성격을 남자다운 성격이라고 하고, 남을 배려하고 온순한 성격을 여성스러운 성격이라고 한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남자다운 성격 즉 남성성이 높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여성성이 높은 것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지만, 동일한 성별을 갖는다고 해도 그 개인이 어떤 문화권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

* 본 연구는 2011학년도 경성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본 연구는 2011년 한국심리학회 정기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장수지, (608-736)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 3동 314-79번지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화: 051)663-4549, E-mail: ssujie@hanmail.net

(gender role identity), 즉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형인 자율성 대 관계성의 대비가 문화 간 차이를 설명하는 효과적인 기제인 문화적 자기개념(self-concept)의 속성인 독립성 대 상호협조성의 대비에 매우 유사하게 대칭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문화적 자기개념이 문화에 따라 다르게 발달되는 것처럼, 성역할정체감 역시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성역할정체감의 문화 간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역할정체감이란 남성과 여성에 대해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거나 허용되는 남성성 및 여성성의 기대치가 개인의 인성적 특성으로 내면화된 일종의 자기개념으로서, 개인의 태도와 사고방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성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장휘숙, 2002). 일반적으로 성역할정체감 중 남성성(masculinity)은 독립적, 과업지향적, 경쟁적, 이성적, 감정을 억제하는 측면과 관련이 있으며, 여성성(femininity)은 관계지향적, 양육적, 감성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장수지, 2010). 이렇듯 주체적 자아확립에 관련된 '자율성'과 타인과의 조화에 관련된 '관계성'은 각각 성역할정체감에서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핵심적 속성으로 규정된다(Bakan, 1966).

기존의 연구들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은 성별에 따른 전형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즉 남성성은 남성에게서 더 높게, 여성성은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Bem(1974)이 성역할정체감에서 양성성(androgyny)의 개념을 주창하고부터는 남녀 모두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높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역할정체감의 성별 전형성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개인이 어떠한 문화권에 속해 있고 그 문화권에서 어떠한 문화적 규범이 작동하는지에 따라, 같은 성별이라 할지라도 매우 다른 수준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성역할정체감의 성별 전형성에 대한 신념은 시대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미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자기주장을 펼치고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기 보다는 가족과 타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역할이 기대되었던 과거 여성에 비해, 현대의 여성들에게는 직장과 같은

공적 공간에서 독립성과 자기주장, 적극성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사회적 요구로 인해, 여성은 과거와는 달리 남성성 발달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격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남성 역시 여성성 발달에 대해 덜 억압적이며 성별에 따른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 BSRI(Bem Sex Role Inventory; Bem, 1974)나 PAQ(Personality Attribution Questionnaire; Spence & Helmreich, 1978)와 같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이 있는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한 1973년부터 1994년까지의 연구결과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는(Twenge, 1997), 이 20년 사이에 남녀의 성역할정체감 점수 차이는 점점 줄어들었고, 특히 여성의 남성성 점수가 크게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미국 사회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의 증가와 과거 남성적 직업군에 대한 여성의 관심 증가, 스포츠 활동 참여 여성의 증가 등의 영향을 지적하였다. 이렇듯 시대사회적 변화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발달의 가변성은 이미 학문적으로도 논의된 바 있으나, 동시대에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개인의 성역할정체감 정도의 차이에 대한 비교문화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비교문화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성역할정체감의 성별 전형성이 범문화적인 현상으로 확고하게 인지되어온 탓에 문화에 따른 편차에 주목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 그 이유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회의 사회경제적 상황 및 규범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수위가 사회문화별로 다를 수 있으며, 남성적 혹은 여성적 성격특성이 비슷하게 수렴하도록 발전하는 곳과 이분화 양상이 지속되는 곳 등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성역할정체감의 형성과정에서 부모나 교사, 매스 미디어와 같은 환경적 영향을 강조하는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이나, 성별 고정관념적 관행과 같은 사회구조적 영향을 강조하는 최근의 학문적 추세를 보면, 개인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발달시켜 가는 과정은 단순히 남성 혹은 여성에 대한 성역할 기대치를 학습한 결과 그 이상으로, 개인이 속한 사회의 규범적 기대치를 학습한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역할정체감이 자기개념의 일부라는 관점으로 보더라도 자기개념

으로서의 성역할정체감의 발달은 결국 개인이 속한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동의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들은 성역할정체감 연구에서 문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할 근거가 된다.

성역할정체감 형성 및 발달에서의 문화에 따른 차이는 우선 남성성과 여성성 성격의 내재화 수준에서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남성성과 여성성과 같은 성역할정체감의 하위구성요소 간의 관계양상의 차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 간의 관계가 정적인 관계일 수도 있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부정적인 관계일 수 있으며, 또 그 상관관계가 강하거나 약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수준 및 하위구성요소 간의 관계양상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검토함에 있어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형인 자율성과 관계성이 성별의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문화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문화 간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가장 대표적인 차원은 개인주의-집단주의의 개념적 틀이다. Hofstede (1980)나 Triandis(1994)와 같은 비교문화 심리학자들은 문화 간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 틀을 사용해 왔다. 서양 문화로 대표되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개인은 자기 안에 내재된 개인적인 속성, 즉 능력이나 지성, 성격특성, 목표, 취향에 집중하고, 타인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자신만의 개인적 속성을 공적 혹은 사적 공간에서 표현하고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표현하고 자율과 통제, 개인적 목적달성을 중시하는 것 등은 모두 개인이 그 문화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 과정에서 타인 혹은 집단의 목표나 욕구보다는 개인의 욕구가 더 우선시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동양 문화로 대표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질적으로 타인과 연계되고 사회적 배경으로부터 뗄 수 없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독립적인 것보다는 타인과 함께 상호의존하는 것을 더 중요한 규범적 과제로 간주한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나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상호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한다(Matsumoto, 2000).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비교문화연구에서는 각 문화권에 속한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제인 자기개념 혹은 자기해석(self-construal)의 차이가 이러한 문화 간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즉 문화권에 따라 가치관이나 규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속한 개인들은 각기 다른 자기개념을 발달시키게 되며, 이러한 자기개념의 차이가 개인의 행동양식의 차이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이론인 Markus와 Kitayama(1991)의 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 이론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에서의 개인은 자신을 독립적이고 유일무이한 개체로서 정의하는 독립적 자기(independent self)를 발달시키며,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신을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하는 상호협조적 자기(interdependent self)를 발달시킨다. 이후에 실시된 Singelis(1994)나 Kashima, Kim, Gelfand, Yamaguchi, Choi와 Yuki(1995)에 의한 실증적 연구는 독립적 자기관이 서양인의 자기관을 반영하며,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동양인의 자기관을 반영한다는 기존의 신념을 확고히 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을 지지하지 않는 연구결과 역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Kashima 외 (1995)의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미국인에 비해 높은 집단주의 점수를 나타내었지만, 또 다른 집단주의적 속성과 관련된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미국 여성이 가장 높게, 일본인 남녀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atsumoto, Weissman, Preston, Brown와 Kupperbusch(1997)는 미국인이 일본인보다 더 집단주의적인 것으로, Takano와 Osaka(1997)은 일본인이 미국인보다 더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한민,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소혜와 장웨이(2009)의 한중일 비교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관의 속성이 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서양인이 독립적 자기관을 가지고 동양인이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가진다는 동서양 간의 차이가 약하거나 비일관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기존의 비교문화와 관련된 논의가 서양 대 동양,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의 이분법적 논의로 편향되어 왔으므로 개인주의-집단주의 외의 다른 차원을 논의구도에 포함시켜 동일 문화권 내에서의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서양 대 동양의 이분법적 논의구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4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동양 문화권 내의 하위문화 간 편차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역할정체감이 성별과 문화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문화 간 차이에 관해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권에 따른 차이, 나아가 지금까지 동질적인 문화권으로 간주되어 온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성역할정체감의 차이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정체감 하위구성요소들의 평균치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대학생 간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가? 둘째, 성역할정체감 하위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양상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대학생 간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가? 셋째, 성역할정체감 하위구성요소들의 평균치는 남성과 여성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가?

만일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자기개념이 발달된다면, 자기개념의 일부인 성역할정체감에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여기서 자기개념을 크게 독립성과 상호협조성의 속성으로 나누어 볼 경우, 성역할정체감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자율성-관계성과 그 개념적 속성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이론적 혹은 실증적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대략적인 예측을 세울 수 있다. 우선 성역할정체감의 성별 전형성에 기초하면, 남성의 남성성, 여성의 여성성이 상대편보다 각각 더 높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가장 강력한 비교문화연구의 논의 차원인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혹은 독립적 자기 대 상호협조적 자기의 이론적 근거에 기초할 때, 서양 문화권에 속한 미국인은 한국, 중국, 일본인보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향하는 남성성 정도가 더 높고, 반대로 동양 3개국의 개인은 미국인에 비해 관계지향적인 여성성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 문화권 내 편차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들을 수렴해 보면, 집단주의 성향과 유교적 특성 등 동질적으로 인식되어 온 동양 문화권 내 3개국 간의 차이도 예측 가능하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조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인 대학생 251명(남학생 95명, 여학생 156명)이고, 일본인 대학생 180명(남학생 70명, 여학생 110명), 중국인 대학생 119명(남학생 58명, 여학생 61명), 미국인 대학생 137명(남학생 35명, 여학생 102명)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각각 21.13세($SD=2.59$), 19.81세($SD=0.87$), 22.03세($SD=1.75$), 20.08세($SD=1.07$)였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의 경우 미국 태생인 학생들로 제한을 두고 모집하였으며, 인종의 구성은 백인 94명, 흑인 18명, 아시아인 9명, 원주민 1명, 혼혈 6명, 기타 7명, 무응답이 2명이었다¹⁾. 한국, 일본, 중국의 경우 유효응답자 전원이 자국민으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편의추출에 의해 선정된 4개국의 대학생들에게 배부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조사 실시 전에 대학 내 윤리심사위원회(ethical review board)의 승인과정을 거쳤다.

측정 도구

성역할정체감

성역할정체감의 측정은 PAQ를 확대, 보완한 척도인 EPAQ(Extended Personality Attribution Questionnaire; Spence, Helmreich, & Holahan, 1979)를 사용하였다. PAQ는 성격특질로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주도성과 공유성으로 구성되며, 이를 확대한 EPAQ는 주도성(agency), 과도한 주도성(unmitigated agency), 공유성(communion), 과도한 공유성(unmitigated communion)의 4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 PAQ 및 EPAQ에서는 주도성(agency)와 공유성(communion)이라는 개념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1) 본 연구에서 미국 대학생에 포함된 아시아인 9명의 성역할정체감 하위구성요소들의 평균치와 이들을 제외한 미국 대학생들의 평균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종은 아시아인이지만 미국 국적을 지닌 이 9명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따로 제외시키거나 구별하지 않고 미국 대학생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각각 남성성, 공유성은 여성성에 해당하는 개념이다(Spence, Helmreich, & Stapp, 1974). 따라서 PAQ의 확대판인 EPAQ에서의 4개 하위개념은 각각 성역할정체감의 하위요소로서 긍정적 남성성, 부정적 남성성, 긍정적 여성성, 부정적 여성성으로 달리 표현될 수 있다. Helgeson(1994)는 심리학 연구에서 성역할정체감 측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BSRI나 PAQ가 모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측면의 남성성과 여성성만을 측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에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는 속성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만을 측정함으로써 사회적 바람직성 응답 오류를 높일 가능성도 우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SRI, PAQ와 더불어 성역할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Smiler & Epstein, 2010) EPAQ를 사용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까지도 고려함으로써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성역할정체감의 속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성역할정체감 하위개념의 속성을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남성성(Positive Masculinity, 이하 PM으로 표기)은 독립성, 합리성과 같은 도구적 속성을 지니며, 긍정적 여성성(Positive Femininity, PF)은 타인에 대한 배려나 따뜻함과 같은 표현적 속성을 지닌다. 이 두 요소는 모두 남성성과 여성성의 속성 가운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측면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부정적 남성성(Negative Masculinity, NM)은 자기중심성, 거만함, 타인에 대해 배타적인 성향을 나타내어 긍정적 여성성이 결여된 상태의 남성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정적 여성성(Negative Femininity, NF)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타인 의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등 긍정적 남성성이 결여된 상태의 여성성이라고 할 수 있다. 주도적 성향이 공유성에 의해 완화되지 않았을 때, 반대로 공유적 성향이 주도성에 의해 완화되지 않았을 때, 이는 어떠한 한 측면이 과도하게 높고 다른 측면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를 뜻하며(Helgeson, 1994), 이와 같은 상태는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kan, 1966).

본 척도는 총 22문항이며 양 극단의 표현에 대해 본

인과 더 가까운 표현을 1~5점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 하위척도들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계수는 PM이 .70(한일중미 각각 .67, .63, .60, .59), PF가 .80(각각 .74, .80, .77, .81), NM이 .80(각각 .78, .78, .78, .80), NF가 .72(각각 .59, .66, .74, .78)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 간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M, PF, NM, NF의 값은 각 요인의 평균치를 문항수로 나눈 값으로 각각 1~5의 범위를 갖는다. 다음은 설문문항의 예시이다. PM은 '매우 수동적인(1)-매우 능동적인(5)',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는(1)-매우 자신감 있는(5)', PF는 '대인관계에서 매우 냉담한(1)-대인관계에서 매우 따뜻한(5)', '타인의 기분을 잘 알아채지 못 하는(1)-타인의 기분을 잘 알아채는(5)', NM은 '전혀 거만하지 않은(1)-매우 거만한(5)', '전혀 자기중심적이지 않은(1)-매우 자기중심적인(5)', NF는 '타인에게 전혀 의존적이지 않은(1)-타인에게 매우 의존적인(5)', '전혀 불평하지 않는(1)-늘 불평하는(5)'과 같은 설문문항이 사용되었다.

척도의 번역에 대해서는 미국 대학생의 경우 EPAQ 원척도의 영문 문항이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그 외 국가에서는 모국어와 영어 모두에 능통한 심리학 전공 박사 3명이 각각의 언어로 번역한 후, 다시 두 언어에 모두 능통한 다른 3명이 역번역하여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결 과

성역할정체감 4요인의 기술통계

다음의 표 1은 성역할정체감 4개 하위요인의 기술통계량을 국가별, 성별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치는 PM 3.13, PF 3.75, NM 2.61, NF 2.88로, PF, PM, NF, NM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성역할정체감의 부정적 특성보다는 긍정적 특성에 대한 자기평가를 더 높게 하였다. 또한 남성성과 여성성 중에서는 남성성보다 여성성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중국 남성과 미국 남성에서만 예외적으로 NM이 NF보다 더 높게 나타났지만, 그 외에는 모두 PM과 NM이 각각 PF, NF보다 높

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성역할정체감 4요인 간 상관관계

다음의 표 2와 표 3은 성역할정체감 4요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국가 및 성별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상관분석 결과는 4개국 남녀 간에 성역할정체감에 대

한 개념적 속성의 차이와 공통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선 성역할정체감의 긍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PM과 PF의 관계는 대체로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즉 PM과 PF 둘 다 높거나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미국 남성과 한국 여성에서는 이 두 개념이 무상관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1. 국가와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4요인의 기술통계량

| 성역할 정체감 | 국가 | 성별 | N | M | SD | 성역할 정체감 | 국가 | 성별 | N | M | SD | | |
|-----------------|-----------------|----|-----|------|------|-----------------|-----|-----------------|-----|------|-----|------|-----|
| 긍정적 남성성 (PM) | 한국 | 남성 | 95 | 3.30 | .74 | 긍정적 여성성 (PF) | 한국 | 남성 | 95 | 3.57 | .70 | | |
| | | 여성 | 157 | 3.02 | .65 | | | 여성 | 157 | 3.78 | .57 | | |
| | | 합계 | 252 | 3.13 | .70 | | | 합계 | 252 | 3.70 | .63 | | |
| | 일본 | 남성 | 70 | 2.59 | .77 | | 일본 | 남성 | 70 | 3.31 | .72 | | |
| | | 여성 | 110 | 2.55 | .65 | | | 여성 | 110 | 3.43 | .74 | | |
| | | 합계 | 180 | 2.57 | .70 | | | 합계 | 180 | 3.39 | .73 | | |
| | 중국 | 남성 | 58 | 3.54 | .68 | | 중국 | 남성 | 58 | 3.99 | .44 | | |
| | | 여성 | 61 | 3.42 | .51 | | | 여성 | 61 | 4.14 | .56 | | |
| | | 합계 | 119 | 3.48 | .60 | | | 합계 | 119 | 4.07 | .51 | | |
| | 미국 | 남성 | 35 | 3.60 | .62 | | 미국 | 남성 | 35 | 3.87 | .62 | | |
| | | 여성 | 102 | 3.54 | .60 | | | 여성 | 101 | 4.14 | .68 | | |
| | | 합계 | 137 | 3.55 | .60 | | | 합계 | 136 | 4.07 | .67 | | |
| | 합계 | 남성 | 258 | 3.20 | .81 | | 합계 | 남성 | 258 | 3.63 | .69 | | |
| | | 여성 | 430 | 3.08 | .72 | | | 여성 | 429 | 3.83 | .70 | | |
| | | 합계 | 688 | 3.13 | .76 | | | 합계 | 687 | 3.75 | .70 | | |
| | 부정적 남성성 (NM) | 한국 | 남성 | 95 | 2.72 | | .58 | 부정적 여성성 (NF) | 한국 | 남성 | 95 | 2.89 | .57 |
| | | | 여성 | 157 | 2.61 | | .73 | | | 여성 | 156 | 3.02 | .57 |
| | | | 합계 | 252 | 2.65 | | .63 | | | 합계 | 251 | 2.97 | .57 |
| 일본 | | 남성 | 70 | 2.82 | .71 | 일본 | 남성 | | 70 | 3.14 | .59 | | |
| | | 여성 | 110 | 2.80 | .69 | | 여성 | | 110 | 3.16 | .59 | | |
| | | 합계 | 180 | 2.81 | .69 | | 합계 | | 180 | 3.15 | .59 | | |
| 중국 | | 남성 | 58 | 3.63 | .70 | 중국 | 남성 | | 58 | 2.83 | .54 | | |
| | | 여성 | 61 | 2.50 | .63 | | 여성 | | 61 | 2.91 | .53 | | |
| | | 합계 | 119 | 2.57 | .67 | | 합계 | | 119 | 2.87 | .54 | | |
| 미국 | | 남성 | 35 | 2.61 | .80 | 미국 | 남성 | | 34 | 2.25 | .55 | | |
| | | 여성 | 102 | 2.21 | .73 | | 여성 | | 100 | 2.39 | .65 | | |
| | | 합계 | 137 | 2.31 | .77 | | 합계 | | 134 | 2.35 | .62 | | |
| 합계 | | 남성 | 257 | 2.71 | .68 | 합계 | 남성 | | 257 | 2.86 | .62 | | |
| | | 여성 | 430 | 2.55 | .73 | | 여성 | | 427 | 2.89 | .66 | | |
| | | 합계 | 688 | 2.61 | .72 | | 합계 | | 684 | 2.88 | .64 | | |

PM과 NM의 관계는 미국 남성에게서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 외에 다른 모든 대상자들에게서는 두 요인의 관련성이 낮게 나타났다. 비록 낮은 상관관계이기는 하나 일본과 중국 대상자들에게서는 오히려 부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PM과 NM은 둘 다 남성성이므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Helgeson, 1994) 정적 관련성이 예측되었으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는 미국 남성에게서만 나타났다. 이어 PF와 NM, 내지는 PM과 NF는 각기 이론적으로 양극단의 상반되는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Helgeson, 1994), 본 연구에서도 모든 대상자들에서 부적인 상관관계로 제시되었다. 또한 여성성의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인 PF와 NF 간의 관계에서는 미국 남성에게서는 보통 정도의 정적 관련성이 보여 Helgeson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지만, 그 외의 대상자들에게서는 무상관에 가깝거나 오히려 부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역할정체감의 부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NM과 NF 간의 관계는 미국 남성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들에게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들은 성역할정체감을 떠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들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두 요인 다 낮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가 및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의 차이

국가 및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하위요인에서의 정도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한국/일본/중국/미국)와 성별(남성/여성)을 독립변수로 두고 PM, PF, NM, NF 평균치를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한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는 이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로서 국가와 성별 각각의 주효과, 국가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및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역할정체감 4요인 전체에서 국가×성별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국가와 성별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한편 국가와 성별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국가와 성별 효과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PM, PF, NF에서 국가 효과(각각의 F값은 67.65, 35.30, 45.26)는 성별 효과(각각의 F값은 5.16, 12.21, 3.60)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효과의 크기를 추정하는 부분 에타제곱값을 보더라도, NM 이외에는 국가 효과의 크기는 모두 .14 이상으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해, 성별의 효과 크기는 대부분 .02 이하로 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은 대체로 그들의 성별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립되기는 하지만, 성별보

표 2. 남성의 성역할정체감 4요인 간의 상관관계

| 구 분 | 한 국 | | | 일 본 | | | 중 국 | | | 미 국 | | |
|-----|---------------------|-------------------|--------------------|---------------------|--------------------|-------------------|---------------------|-------------------|------------------|------------------|------------------|------|
| | PM | PF | NM | PM | PF | NM | PM | PF | NM | PM | PF | NM |
| PF | .20 [†] | - | | .41 ^{***} | - | | .38 ^{**} | - | | .06 | - | |
| NM | .09 | -.25 [*] | - | -.02 | -.39 ^{**} | - | -.06 | -.11 | - | .41 [*] | -.26 | - |
| NF | -.38 ^{***} | -.19 [†] | .39 ^{***} | -.50 ^{***} | -.37 ^{**} | .33 ^{**} | -.47 ^{***} | -.32 [*] | .33 [*] | -.22 | .29 [†] | -.12 |

주.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표 3. 여성의 성역할정체감 4요인 간의 상관관계

| 구 분 | 한 국 | | | 일 본 | | | 중 국 | | | 미 국 | | |
|-----|---------------------|---------------------|--------------------|---------------------|---------------------|------------------|---------------------|---------------------|------------------|-------------------|-------------------|--------------------|
| | PM | PF | NM | PM | PF | NM | PM | PF | NM | PM | PF | NM |
| PF | -.04 | - | | .30 ^{**} | - | | .29 [*] | - | | .26 [*] | - | |
| NM | .21 ^{***} | -.40 ^{***} | - | -.06 | -.48 ^{***} | - | -.17 | -.50 ^{***} | - | .19 [†] | -.26 [*] | - |
| NF | -.30 ^{***} | .02 | .30 ^{***} | -.58 ^{***} | -.45 ^{***} | .24 [*] | -.56 ^{***} | -.13 | .23 [†] | -.22 [*] | .04 | .47 ^{***} |

주.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다는 오히려 그들이 속한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PM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과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에 관한 것이니만큼 성별에 의한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PF는 PM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양상이 제시되었다. 미국과 중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PF 정도는 남성보다 더 높았다. NM의 경우는 일본과 한국이 비슷하거나, 일본이 중국보다 더 높았으며, 미국 대학생의 NM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NM은 남성성의 일부이므로 남성이 여성보다 역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NF는 일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정도, 미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NF의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음의 그림들은 이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남성은 PM과 NM, 여성은 MF

와 NF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소속된 국가에 따른 차이가 확연히 큰 양상을 띠고 있다. 단, NM에서만 중국 남성과 여성 간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 부정적인 남성성을 내재화시키고 발현시키는데 있어 두드러진 성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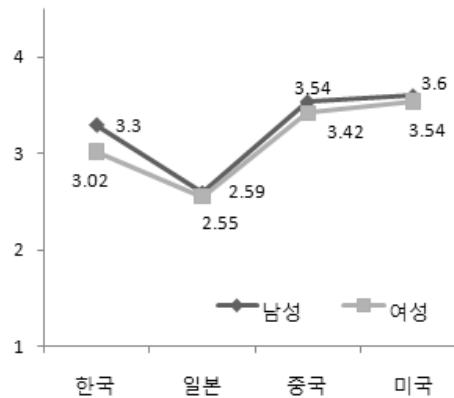


그림 1. PM의 성별/국가별 평균치

표 4. 국가와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4요인별 이원배치 분산분석(2-way ANOVA) 결과

| 성역할정체감 | 변수원 | 총 제곱합 | df | 평균제곱 | F | Post Hoc | 부분 에타제곱 |
|-----------------|-------|--------|-----|-------|----------|-----------------------|---------|
| 긍정적 남성성 (PM) | 국가 | 88.21 | 3 | 29.40 | 67.65*** | 미국>중국>한국>일본 | .23 |
| | 성별 | 2.24 | 1 | 2.24 | 5.16* | 남성>여성 | .01 |
| | 국가×성별 | 1.58 | 3 | .53 | 1.21 | | .01 |
| | 오차 | 295.53 | 680 | .44 | | | |
| 긍정적 여성성 (PF) | 국가 | 43.95 | 3 | 14.65 | 35.30*** | 미국>중국>한국>일본 | .14 |
| | 성별 | 5.07 | 1 | 5.07 | 12.21** | 여성>남성 | .02 |
| | 국가×성별 | .39 | 3 | .13 | .31 | | .00 |
| | 오차 | 281.78 | 679 | .42 | | | |
| 부정적 남성성 (NM) | 국가 | 11.29 | 3 | 3.76 | 7.84*** | 일본=한국>미국, 일본>중국>미국 | .03 |
| | 성별 | 3.85 | 1 | 3.85 | 8.02** | 남성>여성 | .01 |
| | 국가×성별 | 2.57 | 3 | .86 | 1.78 | | .01 |
| | 오차 | 326.63 | 680 | .48 | | | |
| 부정적 여성성 (NF) | 국가 | 45.88 | 3 | 15.29 | 45.26*** | 일본>중국=한국>미국 | .17 |
| | 성별 | 1.22 | 1 | 1.22 | 3.60* | 여성>남성 | .01 |
| | 국가×성별 | .38 | 3 | .13 | .38 | | .00 |
| | 오차 | 228.43 | 676 | .34 | | | |

주. *** $p < .001$, ** $p < .01$, * $p < .05$

논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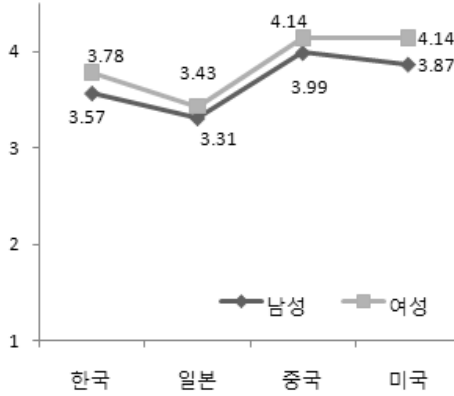


그림 2. PF의 성별/국가별 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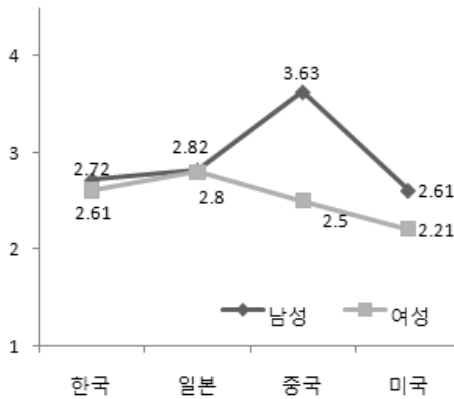


그림 3. NM의 성별/국가별 평균치



그림 4. NF의 성별/국가별 평균치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으로서의 성역할정체감이 성별과 문화에 따라 성격적 특성으로 어떻게 다르게 내면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의 서양 대 동양,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의 이분법적 논의가 문화 간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서양 문화권에 속하는 미국과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중국, 일본의 4개 국가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질 문화권 내 하위집단들 간의 이질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개국 남녀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성역할정체감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자기평가가 높았으며,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측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자기평가가 더 높은 것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을 내면화하려는 동기가 더 크게 작동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회적 바람직성의 오류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중일 3국에서 남성성보다 여성성 내재화 경향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관계지향적이고, 집단 중심적인 동기추구가 동양 문화권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미국 남녀의 PF 정도가 PM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외의 결과이므로 향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예: Kashima 외(1995)의 연구 등)에서 집단주의 문화의 대표적 요소인 대인관계

2) 익명의 논평자는 본 연구에서 남성성보다 여성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이고 한정적인 표본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을 제안하였다. 대학생 표본은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만한 중산층 이상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여성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매너와 친사회성이 중산층에서 특히 강조되는 가치임을 보여주는 최근의 문화인류학적, 문화심리학적 연구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남성성보다 여성성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이러한 표본의 대표성 결여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는 위의 해석과 같은 이유가 부분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측면의 점수가 일본인이 미국인보다 오히려 더 낮았다. 이는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때, 미국인이 내면화하고 있는 관계친화적 성향들은 지금까지 집단주의 문화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집단중심적이고 타인중심적인 속성과는 차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문화심리학에서 상호협조적 자기, 즉 집단주의 문화권에 최적화된 것으로 간주되는 문화적 자기를 관계적 자기(relational self)와 집단적 자기(collective self)로 세분화시켜 문화적 자기가 국가 혹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Kashima & Hardie, 2000; Brewer & Chen, 2007). 관계적 자기가 높은 개인은 특정의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자신을 정의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 상호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집단적 자기가 높은 개인은 사회적 자기로서 사회적 범주나 집단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정의하고, 집단의 조화와 내집단 규범과 역할, 지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긍정적 여성성이 높게 나타난 미국인의 경우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하기 보다는, 관계적 자기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인의 관계지향성은 개인보다는 집단의 목표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집단주의 혹은 집단적 자기 성향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며, 이로써 긍정적 여성성과 긍정적 남성성이 동시에 높은 점수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도 설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역할정체감 4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PM-PF 관계에서는 미국 남성과 한국 여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PM-NM 간에는 미국 남성이 .41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F-NF 간에는 무상관이거나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Helgeson(1994)은 PM, PF, NM, NF 개념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PM과 PF는 독립적인 개념이며 실증적으로도 무상관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낸다고 지적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경우만 그 가정에 일치하였다. 반대로 일본과 중국의 경우 PM-PF 간의 상관관계수가 .29~.41로 낮지 않은 상관계수를 보여 긍정적 남성성과 여성성 정도가 비슷한

수준인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Bem(1974)의 BSRI에서 양성성 유형 내지는 미분화 유형의 존재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보건대, Bem의 분류에 따르면 중국은 양성성 유형이, 일본은 미분화 유형이 더 많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Helgeson은 PM-NM, PF-NF 간의 관계에 대해 각각은 양적, 질적으로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근본적으로 PM과 NM은 남성성, PF와 NF는 여성성의 속성을 지니므로 각각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그 가정은 본 연구에서는 대체로 지지되지 않았다. PM-NM 간 정적 관련성에 대한 가정은, 미국 남성에게서만 강하게 해당되었으며, PF-NF 간 관계에서도 미국 남성에게서만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을 뿐, 그 외에는 오히려 대체로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특히 일본인 남녀의 경우 -.37~-0.45로 다소 강한 부적 관련성이 제시되었다. 이는 애초에 Bakan이 예상한 것처럼 PF의 연장선상에 NF가 존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두 측면이 일본인에게 상반되는 이미지로 내재화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PF-NM, PM-NF 간에 범문화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적 상관관계는, 이들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양극단의 상반된 개념이며 그것이 경험적으로도 뒷받침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위의 상관분석의 결과로부터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념 간 관계에 대한 가정은 대체로 미국인, 그 중에서도 미국 남성의 성역할정체감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 외의 문화권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미약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인을 대상으로 검증되고 만들어진 이론들이 범문화적인 보편적 설명력을 갖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성역할정체감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기본적으로는 정적인 관계임을 가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대부분 그 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남성성과 여성성 개념이 질적으로 상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데이터를 축적하며 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 남성과는 달리 미국 여성들에게 기

존의 이론적 가정들이 지지되지 못 한다는 것은, 시대 사회적 요구로 인해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변하고 있고 이것을 내재화한 성역할정체감의 수준과 구성요소 간의 구체적인 관계 양상이 가변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역할정체감의 발달과 그 구성요소들의 속성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문화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발달되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역할정체감 4요인에 대한 국가와 성별을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한 이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 4요인 모두에서 국가와 성별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의 차이에서는 남성성(PM, NM)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여성성(PF, NF)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성역할정체감의 성별 전형성에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시대사회적 변화에 따라 남녀의 성역할정체감 발달의 격차는 과거에 비해 축소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남성은 남성다운 성격, 여성은 여성스러운 성격을 내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차보다는 국가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의 차이가 대체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 문화권 내에서는 어떠한 행동의 성차가 두드러지기 보다는 오히려 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Kenrick, Trost와 Sundie(2004)의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개인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규범이나 행동적 기대치보다는 그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작동하는 규범적 체계에 맞추어 적응해 나가려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도 시대사회적 변화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역할경계가 불분명해진 것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역할정체감의 문화별 차이를 예측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를 형성하는 미국인에 비해 상호협조적 자기를 형성하는 한국, 일본, 중국인에게서 더 낮은 남성성과 더 높은 여성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PM과 PF 둘 다 비슷한 정도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런데 중국인에게서 보인 높은 수준의 긍정적 남성성은 다른 연

구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한중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개념(자기관)의 차이를 살펴본 한민 외(2009)의 분석 결과, 중국 대학생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독립적 자기관(자율성)이 가장 우세하였다. 중국인의 독립적 자기 발달은 중국인의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실리추구적 성향이나 자기주장성 등과도 관련이 있으며, 중국 사회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강조된 남녀평등의식이 남녀 모두에게 강하게 심어져 있으므로 여성들의 남성성이 높게 나타난 점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혹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한 자녀 정책 하에서 출생한 대상자들이므로 평균적인 중국인에 비해 독립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인과 일본인의 결과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 미국 남성과 여성의 경우,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에 있어서는 관계성과 집합적 목표를 중시하는 한국인과 일본인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에 있어서는 4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남성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측면인 PM은 가장 높게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지만, 부정적 측면인 NM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미국인이 내재화하고 있는 여성성이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개인의 자율성이 매몰되지 않는 정도의 타인에 대한 배려와 매너라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성성 역시 스스로의 내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독립적 자기에 기인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배제하지 않은 긍정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긍정적 측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4개국 중 가장 낮았고, 부정적 측면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질 문화권인 한국과 중국의 결과와 상이한 결과이며, 앞서 언급한 한민 외(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일본 대학생은 다른 두 나라의 대학생들에 비해 독립적 자기(자율성)가 더 낮았다. 또한 상호협조적 자기를 주체성 자기(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인지)와 대상성 자기(스스로를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주변적 존재로 인지)로 나누어 보았을 때(이누미야, 김윤주, 2006), 일본 대학생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대상성 자기가 더 높았고, 주체성 자기는 더 낮았다. 즉 주체성 자기가 타인친화성과 같은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과 연관된다면, 대상적 자기는 순종과 같은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일본인의 성역할정체감 패턴과도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의 대표적 국가로 인식되어온 일본인의 높은 관계지향적 특성, 다시 말해 여성성은 긍정적 측면의 여성성이라기보다는 부정적 측면의 그것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낮은 자율성, 다시 말해 낮은 남성성이 기대되는 일본에서 PM은 예상대로 낮았지만, NM은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의외의 결과가 제시되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동북아시아 3개국 내에서는 대체로 중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 수준의 성역할정체감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위에서 논의한 미국과 일본의 대비 양상에 대해서는 미국인에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기고양(self-enhancement) 동기와 일본인에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기비판(self-criticism) 혹은 자기개선(self-improvement) 동기에 기초하여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즉 미국인은 자신의 긍정적인 속성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부정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에 비해 일본인은 스스로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Heine & Lehman, 1995). 이러한 경향성을 본 연구에서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의 성역할정체감에 연결해보면, 미국대학생들은 남성과 여성으로서 그리고 미국의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는 성역할정체감 속성에 대해 스스로를 높게 평가했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을 낮추는 경향이 문화적 규범으로 자리 잡혀 있는 일본의 대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속성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기를 꺼리는 반면 부정적 측면의 속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스스로를 질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느낀 것이 본 연구의 결과로 일부 반영되었을 수 있다. 이렇듯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것

처럼, 비교문화 연구에서는 문제 삼고 있는 어떠한 행동양식이나 성격특징 등 한 측면에 대하여 단순히 비교하기 보다는 각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고유하게 나타나는 동기나 반응양식 등과 함께 분석결과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의 하위구성요소인 남성성-여성성이 '자율성'과 '관계성'의 속성을 지니며, 이는 비교문화연구 시의 주요 논의차원인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 내지는 독립적 자기-상호협조적 자기의 차원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문화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성역할정체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회자되었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속성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속성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국가 별로 성역할정체감의 특징적인 양상들을 더욱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으며, 성역할정체감이 어느 정도의 성별 전형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그 정도와 속성에 있어서는 성별 전형성을 훨씬 뛰어 넘는 정도로 사회문화적 가치의 지배를 받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봐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교문화연구가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이분법적 구도에 입각한 분석과 해석에 치중되어 있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제기하여, 개인주의 문화인 미국과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 일본, 중국 4개 국가의 비교를 통해 기존의 이분법적 도식에 근거한 차이뿐만 아니라 동질 문화권 내의 편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단순히 동질 문화권 내의 편차를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분법적인 이론적 가정 자체에 도전하는 결과들(예를 들어, 중국인의 PM, PF가 미국인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인의 PF가 낮은 반면 NM이 높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의 큰 비교 틀에 덧붙여 각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국민성, 국가 특유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같은 문화고유성(emic)을 비교문화 차원 속에 포함시켜야 될 필요성을 강조해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문화비교의 정확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다양한 변수들과 이념적 틀을 도입하여 다차원적인 분석과 해석을 시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로는 연구대상자가 각 국가의 대학생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성역할정체감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여성상과 남성상이 달라짐에 따라 세대별 차이가 예상되는 성격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초중반의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 연령층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므로 각 사회구성원들의 성역할정체감 수준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국가별 차이를 고려함과 동시에 각 국가 내의 세대 별 차이에 주목하여 성역할정체감의 형성과 발달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교문화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반응 편향이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지적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반응 편향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평균치 비교 분석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각 국가마다 대상자들의 반응 편향이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가능성을 해석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차후의 비교문화 연구에서는 분석방법에 있어서 평균치 비교보다는 변수 간 관계성(상관관계)에 대한 비교에 초점을 두으로써 반응 편향의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윤주 (2006). 긍정적 환상의 한 일비교: 주체성 자기와 대상적 자기에 의한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9-34.
- 장수지 (2010). 긍정적-부정적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용의 관계: 사회적지지 제공 및 부부관계 효능감 의 매개효과 검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1-23.
- 장휘숙 (2002). 여성심리학(제2판). 박영사.
- 한민,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소혜, 장웨이 (2009). 새로운 문화-자기관 이론의 국가 간 비교연구: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의 자기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49-66.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An essay on psychology and religion*. Skokie, IL: Rand McNally.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s. In P. J. Clayton & J. E. Barrett (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New York: Raven.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rewer, M. B., & Chen, Y-R. (2007). Where(Who) are collectives in collectivism? Toward conceptual clarificat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Review, 114*(1), 133-151.
- Heine, S., & Lehman, D.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Helgeson, V. S. (1994). Rel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Evidence and potential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 412-428.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Kashima, E., & Hardie, E. A.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relational, individual, and collective self aspects(RIC) scal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19-48.
- Kashima, Y., Kim, U., Gelfand, M. J., Yamaguchi, S., Choi, S., & Yuki, M. (1995). Culture, gender, and self: A perspective from individualism-collectivism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925-937.
- Kenrick, D. T., Trost, M. R., & Sundie, J. M. (2004). Sex Roles as Adaptations,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A. H. Eagly, A. E. Bell & R. J.

- Sternberg (Eds.), *The Psychology of Gender*. NY, London: The Guilford Press.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6), 1245-1267.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tsumoto, D., Weissman, M., Preston, K., Brown, B., & Kupperbusch, C. (1997). Context-specific measuremen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on the individual level: The IC Interpersonal Assessment Inventory(ICIAI).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8, 743-767.
- Matsumoto, D. (2000). *Culture and Psychology: People Around the World*. (2nd Ed.), Wadsworth.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miler, A. P., & Epstein, M. (2010). Measuring gender: Options and issues. In J. C. Chrisler & D. R. McCreary (Eds.), *Handbook of Gender Research in Psychology*, 1, New York: Springer.
- Spence, J. T., & Helmreich, R. L., & Stapp, J. (1974).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A measure of sex-role stereotypes and masculinity-femininity.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4, 43-44.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78).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eir psychological dimensions, correlates and antecedent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Spence, J. T., Helmreich, R. L., & Holahan, C. K. (1979). Negative and positive components of psychological masculinity and femininity and their relationships to self-reports of neurotic and acting out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0), 1673-1682.
- Takano, Y., & Osaka, E. (1997). "Japanese collectivism" and "American individualism": Reexamining the dominant view. *The Japanese Journal of Psychology*, 68(4), 312-327.
- Triandis, H. (1994). *Culture and social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 Twenge, J. M. (1997). Changes in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over time: A meta-analysis. *Sex Roles*, 36, 305-325.

Culture and Gender Role Identity: 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y across Korea, China, Japan and US

Sujie Chang
Kyungshung University

The constructs of 'Autonomy' and 'relatedness' as prototype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cultur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or independent self construal-interdependent self construal. In this study, gender and cultural differences on gender role identity(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were examin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onducted to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China, Japan, and the US. are as follows: First, most respondents highly evaluated positive aspect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an negative aspect, and also femininity scores than masculinity scores. Second, the correlation analysis among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showed a different pattern of correlation depending on nation. In addition, the theoretical relationships that previous studies assumed were only supported by American men. Finally, Although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both of country and gender were identified, country effect was appeared to be greater than gender effect. Specifically, American students showed high level of positive aspect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by contrast, Japanese students showed high level of negative aspect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Korean students had shown intermediate levels between Chinese and Japanese. And the degrees of positive gender role identity of Chinese were very similar to that of America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development of gender role identity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dominant sociocultural values and imply that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cultural heterogeneity within a homogeneous culture in 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y.

Keywords: gender role identity, gender difference, independent self construal-interdependent self construal, 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y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07월 09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1년 08월 17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08월 18일